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전 바지락 오감 체험 페스티벌 성료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사흘간(5~7일) 열린 '2023년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고창 바지락 축제)'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흘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2만1000여 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축제기간동안 세계자연유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의 중심 하전갯벌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하전 바지락을 판매했다. 시중가 보다 30% 할인 판매해 준비한 바지락 6톤이 조기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하전 청년회와 부녀회가 함께 운영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바지락 전, 회무침, 비빔밥, 칼국수, 라면 등 바지락 특화요리를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이 외에도 바지락, 풍천장어, 새우 등 고창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당부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의 80%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정읍시,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감염 발생 집중감시

정읍시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집단발생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평일에는 오후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 등에 의해 감염·전파되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하절기(5~9월)에는 기온상승 및 장마 등의 영향으로 미생물 증식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 이질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외식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집단발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먹기, 익혀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최근 외식과 야외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증가하고 있다"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및 음식 익혀 먹기, 안전한 음식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약사업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가정의 달 홀로 사는 어르신 · 등 취약계층 더 세밀히 살필 것"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8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민선8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도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은 언제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5월 가정의 달은 특히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챙기기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정읍은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5월이면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 만큼 국비 확보가 필요한 각 부서는 정책협력관이나 세종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선정

"우금티 사적 가치 · 의미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 선양에 헌신" … 11일 시상식

제13회 동학농민혁명 대상(大賞)에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이하 우금티 사업회)가 선정됐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정읍시장)는 지난 4일 심사를 갖고"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우금티 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에 기여해온 우금티사업회를 올해 혁명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티전적(사적 제387호)은 1894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이 일어난 곳

이다. 동학농민군 최후 전적지로 기록돼 있다.

우금티 전투를 기리는 우금티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94년에 창립됐다. 이후 혁명 후의 격전지인 우금티 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림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SNS를 활용한 우금티 사적과 동학농민혁명정신 전파 등을 통해 혁명 정신 선양과 계승에 기여해오고 있다.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 우금티 추모예술제나 우금티 위령제, 역사탐방 기행과 찾아가는 동학학교와 동학마을 운영 등이 대표 사업들이다.

이학수 위원장은 "우금티기념사업회 혁명 대상 수상이 동학농민혁명이 정읍만이 아닌 전국, 나아가 세계사적 혁명으로 위상을 높임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을 바로 알고 혁명의 의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은 혁명의 위상을 높이고 혁명정신 선양과 후대에 계승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가운데 8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

정읍시, 제51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 개최… 효문화 확산

정읍시는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가운데 8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이호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및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 공연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감동적인 분위기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8명을 선정 시상했다.

부대행사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사시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어르신 부부 3쌍의 금혼식이 진행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중식으로 영양 도시락 드신 후 마지막 행사로 부부&우정가요제가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흥겹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지극한 자식사랑과 부모공경으로 꾸준하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읍시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어버이 날 점심 배식 봉사

심덕섭 고창군수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종합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은 8일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해孝 사랑해孝 존경해孝'란 주제로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약 300명의 어르신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점심 배식 봉사에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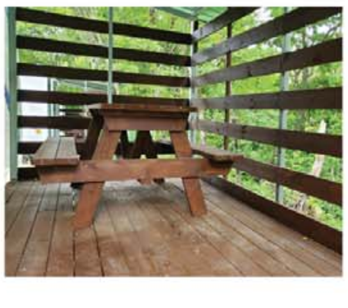
고창 밀알회(회장 유문호)도 죽 100개와 떡 300개를 후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고창군에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 가족공동체 회복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환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환해진다"며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더 깊이 공경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